쪽마다 그림과 글을 맞춰 보는 검수표 — 실제 예시

동화모아 견본 「서준이의 여섯 살 생일」 2쪽 · 검수 2026년 10월 4일



고치기 전. 2쪽 글은 「풍선 끈」이라고만 하고, 같은 풍선을 6쪽 글이 「민트색 풍선」이라고 부름. 그런데 2·3쪽 그림 속 풍선은 빨간색(1·6·7쪽 그림은 민트색).



고친 뒤. 그림은 더 다시 그리지 않고 글이 「빨간 풍선」을 받아 줌. 추가 그림 비용 없음.

검수 기록 한 줄 (보는 AI가 찾고, 운영자가 승인)

쪽	글	그림	어긋남	정한 것
2·3쪽	2쪽 「풍선 끈을 판다에게 건넸어요」 — 색 없음. 6쪽 「돌아온 민트색 풍선 끈」 — 같은 풍선을 민트색이라 함	판다가 쥔 풍선이 빨간색 (1·6·7쪽은 민트색)	**글의 색과 그림의 색이 다름**	글 고치기 — 2쪽 「빨간 풍선을 판다에게 건넸어요」

※ 글 초안·그림: OpenAI 언어 모델·이미지 모델(동화모아 공정) / 대조 검수·새 글 초안: Claude / 새 글 승인: 운영자(응모자 본인). 그림책 화면에는 「이 그림책의 글과 그림, 읽어주기 음성은 인공지능이 만들었어요.」가 붙는다.

검수 기록에 나온 어긋남 다섯 가지

1. 글에 나오는 인물·물건·색이 그림에 있는가
2. 그림에만 있고 글에는 없는 인물이 있는가
3. 대사마다 말한 사람이 글에 드러나는가
4. 앞 쪽과 비교해 옷·소품·색이 같은가
5. 그림 안에 글자나 숫자가 들어가 있는가

따라 할 분을 위한 부탁 문장

> 이 그림에 보이는 인물과 물건, 색을 먼저 모두 적어 줘. 그다음 아래 글에 나오는데 그림에 없는 것, 그림에 있는데 글에 없는 것을 '쪽 / 글 / 그림 / 어긋남' 표로 알려 줘. 확실하지 않으면 '확인 필요'라고 써.

고치는 방법 세 가지

선택	어울리는 경우	견본 9권에서 실제로
다시 그리기 (한 번까지)	인물이 빠지거나 장면이 통째로 튈 때	4권 다시 그림 → 다시 그린 판 2권, 처음 판 2권 채택. 부엉이 책은 다시 그린 판 4쪽이 낮 바깥 장면으로 튀어 처음 판 사용
글을 그림에 맞춰 고치기	색·소품·행동처럼 글로 받아 줄 수 있을 때	9권 글을 그림 보고 새로 씀(초안 Claude, 승인 운영자). 생일 책 2쪽 「빨간 풍선」
그대로 두고 기록	고치면 다른 곳이 흔들릴 때	소풍 책 7쪽 「누나도 한 입」(그림에 누나 없음), 고친 뒤 새로 생긴 펭귄 책 2쪽 어긋남 — 책별 검수 기록에 남김

따라 할 때의 순서

그림이 먼저, 글은 나중. 고친 글도 한 번 더 대조한다. 「확인 필요」가 붙은 줄은 그림을 직접 열어 본다.

견본 그림책: https://storymoa.moahub.co.kr/stories · 아이 사진은 받지 않는다(사진 올리기 기능 없음).